택하신 그릇은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31절)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18.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9.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1.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택하신 그릇은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택하신 그릇은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전도할 수 있는지 다소 민망할 정도입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조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써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는 하셨지만 특별히 그릇이라고 할 만한 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지만 특별한 그릇은 아닌가? 택하신 사람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가? 아무런 사회적 사명은 주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쓰임은 나를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없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은 지팡이라는 표현이 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막대기나 몽둥이로 쓰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릇이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다만 그릇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기에 특별하고 한정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흔히 택함 받은 그릇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택하신 그릇 되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 택하신 그릇 되기입니다. 택하신 그릇이 분명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담겨질 것입니다. 힘이나 능력 즉 학력이나 배경 혹은 천부적인 소질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

님의 뜻이 담길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 또한 담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뜻과 능력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비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그릇이기만 하다면 삶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사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 안으로 영입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미 유대와 이방지역의 모든 교인들에게서 잔학한 박해자로 악명이 자자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록대로 사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돌변하게 됩니다. 사울의 교회 영입은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 교제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게 됩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용이 마음에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탄압할 때의 이유와 명분을 떠올려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연쇄과정에 대한 교회의 고백과 교인들의 증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6절에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하였던 바가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증언을 두고 볼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여겨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인을 박해하는 명분이었던 그리스도 연쇄과정이 한 순간에 진리로 둔갑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영화로운 광채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에 대한 증언을 이를 갈며 싫어했고 듣기 싫어 귀를 막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천상을 현실로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증언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지긋지긋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절초풍할만한 사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바로 그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증언이 사실이고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나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그릇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그릇이었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하시고자 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사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심을 통하여 사울에게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본래의 용도대로 쓰시게 되었는지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사람의 인격을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전제가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은 열린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어서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무척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를 향해 열려있어야만 합니다. 그릇의 입구가 위를 향하지 않는 상태란 그릇이 엎어진 상태입니다. 그릇이 엎어진 상태에서는 무엇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신 것은 바로 엎어진 그릇이었던 사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심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그릇에 맞추어 생각하자면 엎어진 그릇 바로 세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릇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땅을 향하고 있던 그릇의 입구가 하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엎어진 그릇에는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을 때는 쓰지 않거나 설거지를 할 때뿐입니다.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구가 하늘을 향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써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모습은 사울의 변화과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소원할 때에는 마음이 땅을 향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으나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이땅에서 지향하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엎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써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하십니다. 햇빛이 비추는 세상이 아닌 하늘빛이 비추는 하나님을 소원해야 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사울이라는 그릇을 뒤집으셨던 것입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게 된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힘도 능력도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분이 택하신 그릇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목회현장의 부흥을 소원하고 있다면 택하신 그릇이 아닙니다. 심지어 택하신 그릇이 아님에도 부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느냐가 택하신 그릇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택하신 그릇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릇의 열린 부분이 위를 향한 상태이기에 자녀를 관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를 관계함에 있어서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서 자녀가 형통

하는 것이라면 택하신 부모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택하신 그릇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택하셨더라도 그릇이 엎어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앞에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근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늘이 현실인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늘을 향해 소원하고 하늘을 향하여 열정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는 자들은 이 땅을 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릇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상황이 담깁니다. 이러한 일은 마음이 하늘을 향한 그릇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택하신 그릇일지라도 땅을 향한 소원을 가진 채 엎어진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전혀 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리스도의 연쇄과정의 증언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자 예수님 안에서 소원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십자가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의 열린 부분이 위를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한 이유는 몸은 죽을 것이지만 이 몸이 영혼까지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소원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릇은 땅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향한 질그릇이 되기 위해

서는 하나님만을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햇빛이 비추는 세상을 보이지 않게 끊는 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소원하게 되면 인격 전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한편 사울이 이렇게 택한 그릇이 될 때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께 계시를 받아 사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잔악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무서움을 떨쳐내고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또한 아나니아가 찾아오리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택한 그릇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릇으로써의 삶에서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맥락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는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의식으로 항상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소원이 생길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서 하늘을 소원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릇이 될 때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뜻과 계획과 능력은 담기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신분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남편 앞에서 택함 받은 아내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앞에서 택함 받은 남편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택함을 받은 사장님이 소원하는 것은 사업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맥락이 끊어지고 언제나 하늘과 이어진 수직적 차원에서의 맥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은 수평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러나 아나니아 또한 택하신 그릇이었고 이러한 상황인식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아나니아는 그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늘을 소원하게 됨으로써 택함 받은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헬라철학의 본고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신과 사회적 배경과 학력과 이력과 경력의 수평적 맥락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맥락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그릇은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해 있는 동안에만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엎어져 있는 동안에는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위를 향해 있을 때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면서 흐르는 모든 맥락을 인식 속에서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인식 속에서 수평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제의 잘못을 돌아보고 발전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희망에 찬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맥락은 끊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에 어제 일이나 내일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동안에 이 땅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에 의해서 나의 지정의와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택하신 그릇으로써 지금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평적 맥락이 끝나서 과거를 돌이켜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이 수직적 맥락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지금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마음에서 세상을 비추는 햇빛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늘빛이 비추는 하나님을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소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릇의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택하신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도 딸도 사명이고 아내 노릇도 사명이며 남편 노릇도 사명이고 주부 노릇도 사명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 됩니다. 전철을 타도 사명자로 타는 것이고, 버스를 타도 사명자로 타는 것이며, 자가용을 타도 사명자로 타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소원하기입니다. 그럴 때 택하신 그릇으로써 하늘의 뜻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상황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함이 끝난다면 죄의 체질은 우리를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도록 엎어놓게 됩니다. 엎어진 그릇이 된다면 마음은 땅을 향하게 됩니다. 땅의 온갖 기운을 빨아들이며 애를 쓰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잊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될 때 사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택하신 그릇으로써의 아내가 되고, 아내를 위해 택하신 그릇으로써의 남편이 되며, 자녀를 위해 택하신 그릇으로써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써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이 비추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빛이 비추는 하늘을 소원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택하신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